

다니엘서 - 제 120번

예언적 징조를 밝혀내다: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이해하기

Jeff Pippenger

2024-03-06

태양, 달, 별로 상징된 표징들의 성취는 역사가들, 재림운동의 개척자들, 그리고 화잇 자매의 저술을 통해 충분히 다루어져 왔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표징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것들만큼 익숙하지 않다. '땅'에서의 '민족들의 혼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이는 드물다. 또한 많은 이들이 '땅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과 달리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오심'이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정확한 날과 시각은 계시되지 않았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도 자신의 두 번째 나타나심의 시각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또 그는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고통하고,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며, 사람들이 두려움과 이 땅에 임하려는 일들을 바라보므로 기절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며, 그들은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에 나타난 징조들이 이미 성취되었다. 그때 이후 지진과 폭풍, 해일, 전염병, 그리고 기근이 급증해 왔다. 불과 홍수로 인한 가장 끔찍한 파괴가 잇따라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주마다 벌어지는 이 참혹한 재난들은 엄중한 경고의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며, 끝이 가깝고 머지않아 반드시 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은혜의 시기는 더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그의 제지하시는 손을 거두고 계신다. 오랫동안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남녀에게 말씀해 오셨으나, 그들은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그분은 그의 심판으로 그의 백성과 세상에 말씀하고 계신다. 이러한 심판의 때는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자비의 때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자애롭게 굽어보실 것이다. 그의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의 손은 여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뻗쳐져 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처음으로 진리를 듣게 될 많은 이들이 안전한 우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11월 22일.

밀러파의 역사는 말세에 글자 그대로 반복된다. 첫째 천사의 도래와 역사를 표시했던 '징조'들은 셋째 천사의 도래와 역사를 표시하는 '징조'들을 예표한다. 모든 거룩한 개혁 운동은 말세의 셋째 천사 운동과 병행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모든 위대한 개혁이나 종교 운동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의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들에 상응하며, 옛 시대 교회의 경험은 우리의 시대를 위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대쟁투, 343쪽.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상징하는 역사는 곧 셋째 천사의 역사이며, 셋째 천사가 상징하는 역사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와 병행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들에 예언의 계열 속에서 그 위치를 부여하셨으며, 그 일은 이 땅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여전히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이며, 뒤따르는 이것과 나란히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그의 경고를 선포한다. 요한은 말하였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이 비춤 가운데서 세 기별 모두의 빛이 하나로 결합된다.”
The 1888 Materials, 803, 804.

셋째 천사의 사역과 병행되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사역은 또한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시된다.

“나는 지혜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으로 된 열 처녀의 비유로 자주 인도된다. 이 비유는 특별히 이 시대에 적용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또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현재의 진리가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August 19, 1890.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역사는 일곱 우레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 일곱 우레는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곧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나타낸다. 또한 일곱 우레는 말세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나타내며, 그것들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와 같은 ‘순서’로 성취된다.

요한에게 주어져 일곱 우레로 표현된 특별한 빛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개괄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

“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한 후에, 작은 책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명령이 요한에게 이르니, 곧 ‘일곱 우레가 발한 것들을 봉하라’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순서에 따라 밝혀질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

모든 개혁 운동은 서로 병행하며, 십사만 사천의 마지막 개혁 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들은 ‘줄에 줄을 더하며’ 함께 모아져야 한다. 열 처녀의 비유는 밀러파 운동과 십사만 사천의 운동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내적 경험을 보여 준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또한 재림 신자들의 경험을 예시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3.

밀러주의자들과 십사만 사천의 사역과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로 대표된다.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받아 왔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 경험해 왔다. 그 천사들은 하늘 한가운데를 날며 온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고, 이 땅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하늘의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이 그 순서대로 이 세 기별을 선포한다. Life Sketches, 429.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예언적 사건들은 일곱 우레로 표현되어 있다. 그 사건들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지점을 표시한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신 '징조'들은 밀러 운동을 도래하게 한 '징조'들을 가리키며, 14만 4천의 운동에 대한 병행 증언을 이룬다. 14만 4천은 에녹과 엘리야로 대표된 바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2001년 9월 11일은,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의 도래를 표시하는 '징조'로 지목하신 것이다. 에녹과 엘리야로 대표되며 14만 4천이라 불리는 그 무리 가운데 들기 위해서는 그 '징조'와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

예수께서 밀러파 운동의 서막을 알린 "징조들"의 역사를 따라 제자들을 인도하신 후, 그분은 같은 역사를 나타내는 비유를 포함시키심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증언을 반복하고 확장하셨다.

그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였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이제 싹을 내면, 너희는 보고 스스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대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29-33.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단수형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 사이의 구별을 밝히신다. "무화과나무"는 언약의 백성,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다. 다른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에 내린 저주를 주목하라. 그 나무는 신앙 고백의 역사귀로 덮였으나, 그 위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덕적·사고하는 살아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그 무화과나무 위에 저주가 선포되었다.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이 사십 년 동안 살아 있었으나, 여전히 죽은 자들이었다. 주목하라, 이방인을 상징하는 다른 나무들은 앞으로 덮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잎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가장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열매를 맺을 때는 아직 아니었다. 목회자들과 일꾼들을 위한 특별 증언, 제7호, 59-61.

말세의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저주 아래 있다. 비록 스스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공언하지만, 그 공언은 열매가 없다. 예수님은 그 본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점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도 자처하지 않고 예언의 영을 소유하지도 않은 이방인들 사이의 구별을 밝히신다. 이 둘,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언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말세의 남은 자의 특징이며,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그것들을 수호한다고 공언한다. 말세의 역사귀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지목한 남은 자라고 주장하는 그 고백을 상징한다.

이방 세계는 잎도 열매도 없는 무화과나무들로 상징되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경건함이 결여되어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숭고한 영성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행하심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눈멀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다줄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Signs of the Times, 1899년 2월 15일.

무화과나무와 다른 나무들 사이의 구별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의 구별을 덧붙이셨다. 무화과나무가 싹을 틔우는 때는 이방인의 나무들이 싹을 틔우는 때와 달랐다. 마지막 날들에는 "교회들에게 두 가지 뚜렷한 부르심이 주어지며",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음성은 십사만 사천을 위한 싹이 트는 때가 언제인지 밝힌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은 다른 나무들이 싹을 틔울 때를 나타낸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로, 이방인들은 다른 나무들로 상징되었다. 밀러파 역사에서 개신교도들은 무화과나무로, 밀러파는 다른 나무들로 상징되었다. 마지막 때에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예루살렘(포도원)에서 제거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이고, 14만4천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들이다.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은 이방인들로 상징된다.

'이방인'이란 본래 '타국인'을 뜻한다. 이방인들의 나무들은 휴면 상태(죽은 상태)여서, 무화과나무가 싹을 틔우고 살아날 때에도 싹도 내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 휴면 상태의 나무는 마른 나무이며,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이방인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를 때, 그들은 그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주와 언약을 맺기를 선택할 것이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떼어 놓으셨다' 하지 말며, 고자도 이르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다'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과 내 성벽 안에서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과 이름을 주겠고,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또한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 곧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모든 자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내 제단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라. 이사야 56:3-7.

타국인은 "이방인"이며, "둘째 음성"은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된다. 그때 비로소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산이 될 텐데, 이는 "첫째 음성"의 역사에 나타난 시험의 과정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세에 그들이 주의 산에 올 때, 이방인들은 더 이상 타국인도, 마른 나무도 아니게 된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라. 여호와께서도 시온에서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소망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시온, 나의 거룩한 산에 거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이방인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요엘 3:15-17.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불러내는 '둘째 음성'의 역사가 개막될 때에는 밀러주의 운동의 징조들로 예표된 '징조들'이 있다. 우리가 살피는 그리스도의 증언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제시되어 있다. 그 세 증언 각각에서 식별되는 '징조' 가운데 하나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이 '거룩'할 때를 식별하는 '징조'를 요엘이 제시할 때에는 '하늘과 땅이 모두 흔들릴 것이다'라고 한다.

요엘은 예루살렘이 거룩할 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된 '징조'들이 언제 완전하게 성취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때는 주께서 십사만 사천의 죄를 제거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빌라델비아의 운동으로 전환한 때이다. 바로 그때 일곱 교회 중 여섯째 운동(빌라델비아)이 일곱 교회에 속한 여덟째 운동(빌라델비아)이 된다. 그때 투쟁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 투쟁하는 교회는 밀과 가라지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승리하는 교회는 '거룩하며', '다시는 이방인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높이 들린 기치의 도래, 곧 승리한 교회, 곧 '일곱에 속한 여덟째'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때에는 '표적'이 따른다. 자기 백성이 생사(生死)의 '표적', 곧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식별하는 그 표적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을 갖도록,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나무와 나무의 생애에 있는 자연적 순환을 사용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오심의 징조를 주의하여 살피고, 오시는 왕의 표징들을 보게 될 때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바라보고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은 제자들에게 봄에 움트는 나무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그것들이 싹을 틔우면, 너희가 스스로 보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 21:28, 30, 31. 대쟁투, 308.

봄에 나무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깝다.

추수는 지나고, 여름은 끝났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예레미야 8:20.

새싹이 돋는 나무들이 봄이 왔음을 알려 주고, 그러면 우리는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며, 수확은 여름에 거둔다.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마태복음 13:39.

추수는 세상 끝날에 일어난다. 나무들이 잎을 내기 시작하면, 세상 끝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한다.

구주의 어떤 말씀도 다른 말씀을 폐기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오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까움을 알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알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분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홍수가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배운다.

다음 글에서 누가복음 21장에 대한 우리의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건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칼과 기근과 역병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 또한 흔들 것이다. 나는 유럽의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이 어떤 이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나라들이 흔들리는 것임을 보았다." 초기 문집, 41.